

# Are You Ready for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2022. 3. 10 (목)

**meritz** Strategy Daily

## 전략 공감 2.0

### Strategy Idea

우크라이나, 중국의 역할

### 오늘의 차트

불거진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ECB의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까?

### 칼럼의 재해석

글로벌 럭셔리, 어디까지 성장할까?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 Strategy Idea



▲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 우크라이나, 중국의 역할

-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국 중재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상승
- ✓ 중국 태도에 미묘한 변화 발생, 단기적으로 G2 국가로서 중재 노력 가능성 상승
-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재점화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중국 중재 역할에 대한 압박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속 국제사회,  
중국 중재 역할에 대한 압박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현 상황의 중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U 외교 안보 정책 고위대표인 호세프 보렐 고위대표는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정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우크라이나도 중국에 직접적으로 중재 역할을 요청했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도 CNBC 방송에 출연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진핑 국가 주석 뿐'이라고 했다.

중국의 역할이 세계 질서  
향방에 중요

중국은 과연 앞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 동안 국제질서를 규정해 온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세 대국'이었다. 미국과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확실히 설지, 아니면 자체를 추구하는 등의 세계 움직임에 동참할지는 향후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름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 중국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입장

정치, 외교적인 이슈는 예측이 불가하지만, 그동안 중국 외교 부장과 대변인들의 발언에서 단서를 찾아보면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에서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을 유지할 것이고, 2)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스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3) 필요 시 국제사회와 함께 중재에 나설 것이나, 4) 러시아와의 깊은 경제 협력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 1) 중국 중립 입장 유지

1)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에서 '중립'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양국은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육상 경로에서의 중요한 협력 국가이다. 게다가 이번 러시아의 침공이 인도주의 문제로 번지면서 애당초 중국이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환경에서 만약 중국이 계속 러시아 편에 선다면 G2로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시진핑 3기 연임을 앞두고 중국은 결코 불안한 대외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중립'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 2) 도네스크와 루간스크 독립 인정하지 않을 것

2)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도네스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러시아가 역사, 문화 등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일부라고 언급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이기에 국가의 주권 보장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홍콩과 신장위구르의 인권 침해 문제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놓고 서구의 비판이 이어질 때마다 중국이 꺼내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염두에 두면서도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말해온 현안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 3) 필요 시 중재자 역할

3) 적극적이진 않겠지만, 중국은 필요 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중국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25일 중-러 회담에서 '냉전의 정신을 버리고 모든 국가들의 정당한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중시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즉 중국은 무력행사에 대해 은근히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8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쟁이 시작된 13일 만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했다. 그는 '유럽에서 전쟁의 불길이 재점화된 것을 보는게 고통스럽다. 사태가 악화되거나 사태가 악화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3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 협상을 공동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록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지만, 중국이 침묵을 깨고 기존보다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림 1 8일 중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의 화상회담



자료: 신화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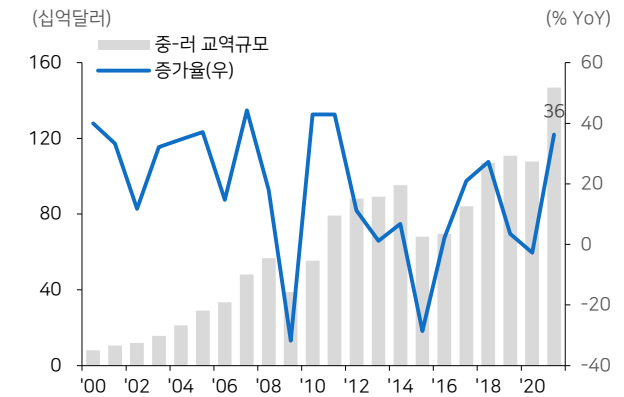
#### 4) 단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유지

4) 대신 러시아와의 깊은 경제 협력은 이어갈 것이고, 서방국가와 함께 러시아를 제재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질책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다극체제'로 전환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적 목표 하에 2013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13년부터 올해 동계올림픽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38번 정상 회담을 가졌다. 거의 분기에 한번 만나는 셈이다. 양국은 정치 뿐만 아니라 교역, 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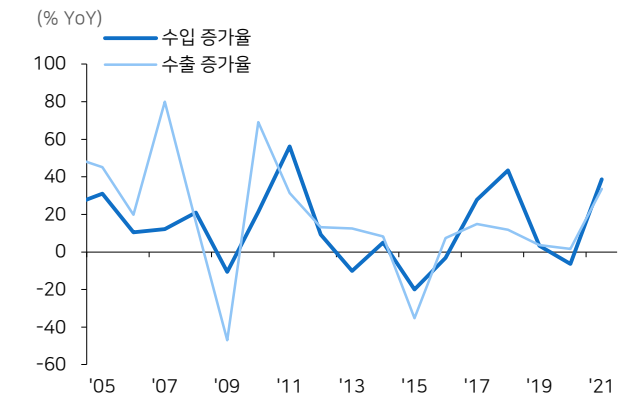
이에 '21년 중국의 對러시아 교역액은 1,468억 달러로 전년대비 36% 급증했고, 2001년 교역액(107억 달러) 대비 14배 가까이 늘었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도 793억달러(+39% YoY)로, 전체 중국 수입액에서의 비중이 '13년의 2.0%에서 3.0%로 늘었다. 러시아 또한 전체 수출에서 유럽향 수출 비중이 '04년의 50%에서 '21년 38%로 낮아지는 대신, 중국향 수출 비중은 14%까지 올랐다(그림 4).

그림1 중-러 교역규모 및 증가율 추이: '21년 증가율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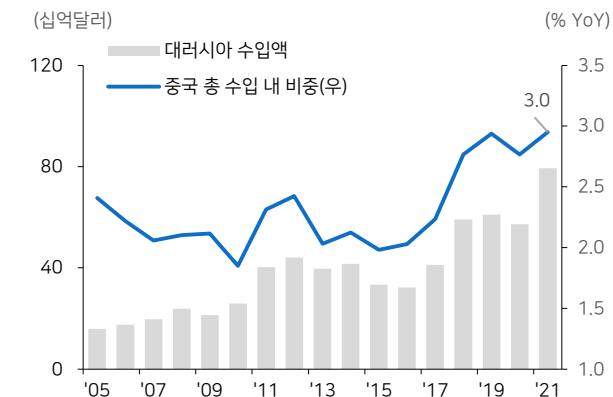
자료: 중국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국의 對러시아 수입과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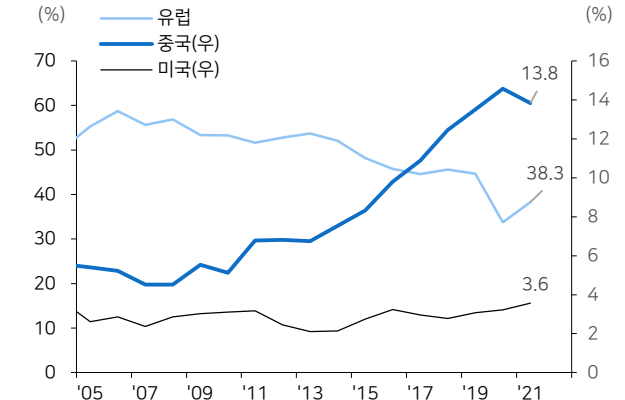
자료: 중국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의 對러시아 수입액 및 전체 수입 비중 추이



자료: 중국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유럽, 중국, 미국의 비중



자료: 러시아 해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크림반도 때에도 러시아에 대한 중국 경제 지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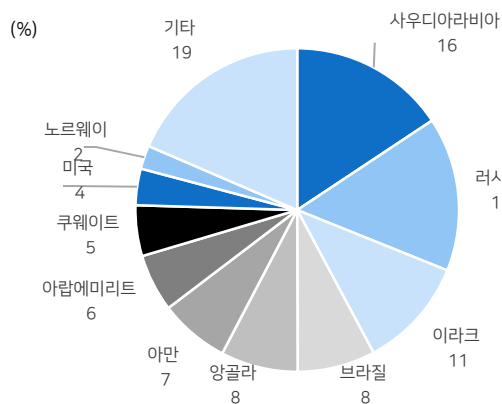
크림반도 합병 때에도 중국은 4천억 달러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해 서구의 경제제재 효과를 상쇄했다. 올해에는 동계올림픽 직전에 가서 15건에 달하는 협력 문서를 체결했고, 이 중에는 30년짜리 가스 공급 계약과 10년짜리 원유 수입 계약도 포함된다. 이는 단순 전략적 목표 차원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비한 에너지 다원화의 수요도 분명 있다.

표1 '22년 동계올림픽 기간 중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15가지 협력 문서

체결 문서명	세부 내용
1	반독점법과 경쟁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2	양국 외교부 2022년 협상 계획
3	중국-러시아 화물과 서비스 무역 질적 발전 로드맵
4	지속가능(그린) 성장 분야에서의 투자 합작 MOU
5	양국 해관총서간 'certificated 경영자' 인정
6	국경 위생 방역 협력 계약
7	러시아산 밀 검역 협정서 보충계약
8	러시아산 보리 수출 검역 협정서 보충계약
9	러시아산 클로버 수출 검역 협정서 보충계약
10	중-러 '22년~'23년 스포츠의 해 개최에 관한 연합 성명
11	중-러 베이더우(Beidou)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의 공동 운영 협력안
12	러시아산 가스 수입 계약(Petro China-러시아 가스공사)
13	중국 서부 정유회사의 원유 공급 보충계약3
14	페트로차이나와 러시아석유공사간 저탄소 발전 관련 협력 계약
15	정보화와 디지털화 협력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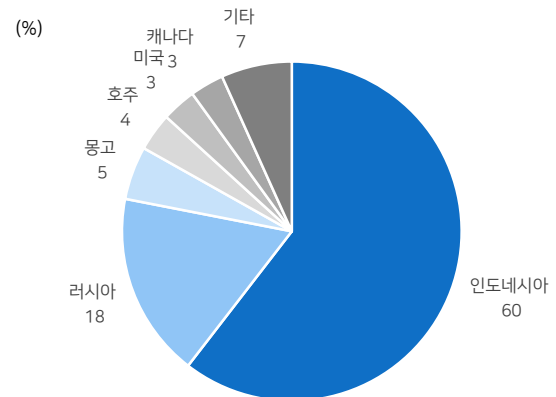
자료: 중국 외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의 원유 수입국 구조 (2020년)



자료: BP 에너지통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의 석탄 수입국 구조 (2021년)



자료: 중국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단기적으로 중국 중재 가능, 단 장기적으로 미중 갈등 재점화 관찰

단기적 영향: 중국 중재 역할  
시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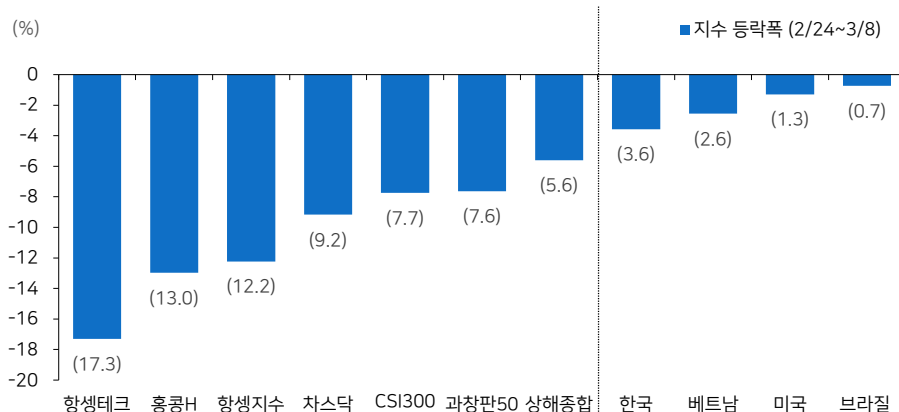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순조로운 시진핑 3기 연임과 대외 압박에 따른 G2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 시 우크라이나 중재 역할을 시행할 것이고 무력행사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과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학적 사태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일 것이다.

장기적 영향: 미중 갈등 재점화  
가능성은 모니터링 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재점화 될 가능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나토 동진은 결국 미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사태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계속 질책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이어갈 경우 중국기업의 사업 중단 등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런 양상이 강화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인다.

그래서일까, 전쟁이 시작되어서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증시의 하락폭이 해외의 주요 지수에 비해 상당히 크다. 물론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동 변수 외에도 홍콩시장은 구조상 대외 불확실성에 수급 환경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전쟁이 시작되어서부터 최근까지 홍콩 주식시장의 낙폭은 너무 커 미중 갈등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유가가 급락하면서 선진국 시장이 반등했지만, 아직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 미중 갈등 확대 등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시장 변동성에 여전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7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이후 홍콩과 중국증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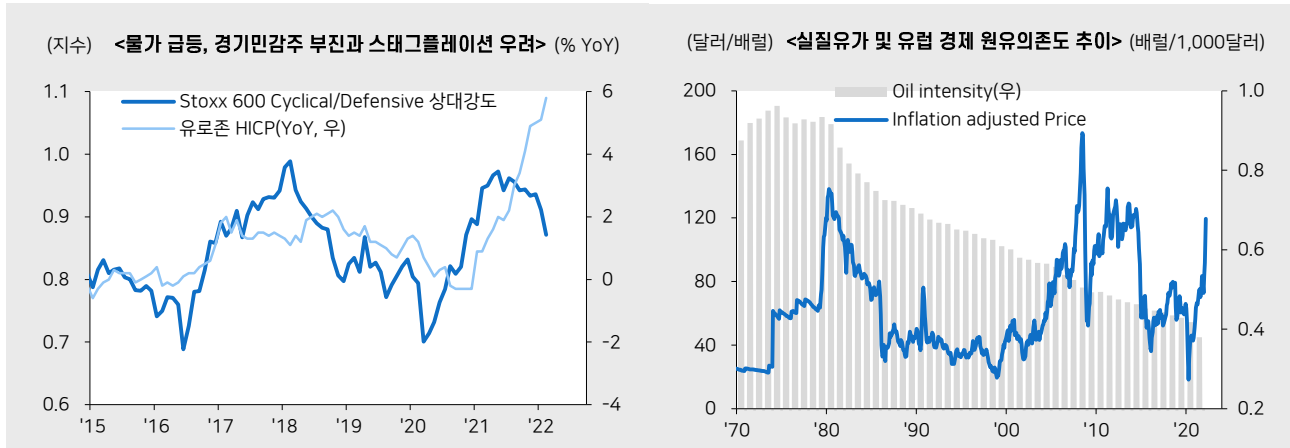


주: 한국은 코스피, 베트남은 VNINDEX, 미국은 S&P500, 브라질은 보네스파 기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오늘의 차트

이승훈 연구위원

## 불거진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ECB의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까?



'21년 하반기 이후 유럽 경기민감  
 업종 상대강도와 유로존 물가의  
 디커플링 관찰

'21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유럽 경기민감업종은 방어업종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유로존 물가는 역사적 수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엔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원자재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됐고, 물가와 경기민감주 사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며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되었다.

ECB 슈나벨 위원의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언급:  
 원유 가격 급등이 유럽의  
 초과수요 현상 해소 흐름에 추세  
 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

Isabel Schnabel ECB 집행위원은 '21년 11월 17일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슈나벨 위원은 1) 경기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2) 병목현상 유발 요인 중 경제 재개, 산업구조 전환 영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럽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확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가 상승이 유럽 내 병목현상을 포함해 초과수요가 해소되는 흐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원자재 가격 압박 장기화 가능성  
 다만, '70년대 이후 유럽 경제의  
 원유의존도가 낮아져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그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원자재 가격 압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유가(7일 119.4달러/배럴)가 1980년대 실질유가(135달러, 최근월 미국 CPI=1)에 근접하고 있으나, 70년대 이후 유럽 경제의 원유의존도(Oil intensity)가 확연히 낮아져 왔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성급히 가져갈 가능성은 낮을 것

오히려 1) 향후 에너지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산업금속 수요 증가(가격 상승), 2) 본격적인 경제 재개 과정을 거치며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ECB의 목표인 2%에 수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최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고, 앞으로 추가 오버슈팅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성급히 가져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칼럼의 재해석

오지우 연구원

## 글로벌 럭셔리, 어디까지 성장할까? (Financial Times)

작년 한 해 큰 화제가 되었던 럭셔리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정책이 올해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에루샤로 대표되는 명품 브랜드 샤넬은 지난해 2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가격을 +10~15%씩 연달아 올렸다. 2022년 들어서도 지난 1월 인기 핸드백 가격을 +10~17% 올린 데 이어, 벌써 두 번째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3월 가격 인상 대상 품목은 인기 상품인 클래식 플랩백과 보이 샹넬 플랩백, 2.55백, 가브리엘 호보백으로, 가격 인상 폭은 +5% 내외이다. 샤넬 측은 "제작비, 원재료 변화와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럭셔리 브랜드들의 2021년 가격 인상 횟수는 루이비통 5회, 프라다 5회, 불가리 4회에 달한다. 루이비통의 대표 제품 가격은 2021년 +10%, 2020년 +4% 인상이 이루어졌고, 2022년 2월 말 +7% 인상되었다. 에르메스는 지난해 가격을 +3.5% 인상했다. 제조원가 상승,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 포지셔닝 전략 등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올해도 계속되는 명품 가격 인상 정책

샤넬, 2022년 두 번째 가격 인상

샤넬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국가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혀, 올해 벌써 2번째 가격 인상이 예고되었다. 이에 따라 샤넬의 대표제품으로 손꼽히는 핸드백과 액세서리, 기성복 가격은 유로존에서 +6%, 영국에서는 +5%, 한국에서는 +5%, 일본에서는 +8%, 홍콩에서는 +2% 상승하게 된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가격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지난 18개월간의 인상과는 달리, 이번 변화는 시장 전반 물가에 조화를 이루기 (harmonise)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넬 패션 담당 사장인 Bruno Pavlovsky 는 "환율 변화에 따라 유럽 판매 가격과 아시아 가격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샤넬 대표제품 중 하나인 보이백이 현재 상하이에서 파리에서와 같은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명품 브랜드들의 중국 판매 가격은 유럽보다 +30~60% 더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는 럭셔리 부문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 때문에 중국의 명품 소비자들은 수년 동안 해외 여행이나 다이공(daigou)을 통해 럭셔리 제품을 구매해왔다. 그러나 팬데믹에 따른 여행 규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은 현지 또는 하이난 같은 면세 구역에서 럭셔리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Bruno Pavlovsky는 "로컬 고객들에게 특권을 주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샤넬의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넬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명품 브랜드이며, 이것이 매우 현대적인 자세라는 의견을 표했다.



**에 · 루 · 샤보다는 에 샤 · 루?** 업계에서는 샤넬의 가격 인상 정책이 시장 포지셔닝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Jefferies 애널리스트 Flavio Cereda-Parini는 샤넬의 가격 인상이 원부자재 비용 상승보다는 경쟁사인 에르메스와 같은 가격대, 루이비통, 디올보다는 높은 가격대로 브랜드를 포지셔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엔드급 지위 구축의 발판** 샤넬이 잦은 가격 인상을 통해 에르메스나 롤렉스 같은 '하이엔드급' 지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샤넬은 지난해 인기 가방 제품에 한해 1년에 한 개씩만 살 수 있는 구매 제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Flavio Cereda-Parini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럭셔리 브랜드들은 물가 상승률의 2.5배로 상품 가격을 매기는데, 특히 핸드백의 경우 명품 소비자들에게는 정당한 구매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고객들은 샤넬의 가격 변화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가격 인상은 브랜드 마진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지셔닝 전략 또한 성공하여 UBS 분석가들이 "가격 결정력과 브랜드 만족도의 선순환 구조"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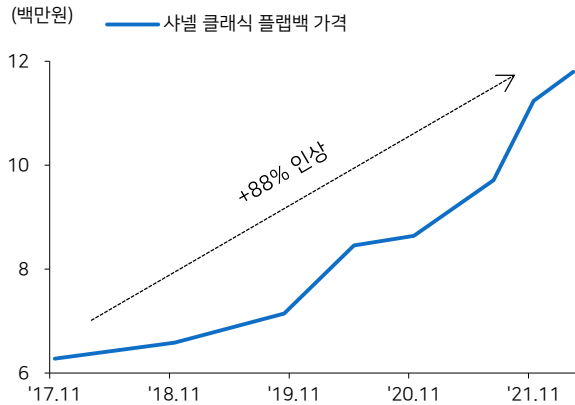
또 다른 럭셔리 브랜드이자 LVMH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루이비통은 작년 한 해 동안 5회의 가격 인상 정책을 시행했는데, 41.6%의 기록적인 마진이 발생했으며, LVMH는 이를 포트폴리오의 다른 브랜드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팬데믹이 종식되고 국제 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 소비자들, '오픈런 안 해'**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명품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돌며 오픈런이 화제가 됐지만, 3~4시간씩 대기하던 일반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리셀 시장에서 샤넬 가방 대부분이 직전 가격보다 리셀가가 떨어져 인상된 값을 주고 구매하기가 망설여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리셀 플랫폼 등에서 클래식 미디움 플랩백 새상품은 1,1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 1,4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한 달 새 300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인상된 가격(1,180만원)보다도 수십만원 저렴하다.

그림1 샤넬 클래식 플랩백 가격 추이



자료: 언론 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샤넬 클래식 플랩백 가격 및 인상률

시기	가격 (원)	인상률 (%)
2015년 3월	5,380,000	
2016년 1월	5,980,000	11.2
2017년 11월	6,280,000	5.0
2018년 11월	6,590,000	4.9
2019년 10월	7,150,000	8.5
2020년 5월	8,460,000	18.3
2020년 11월	8,640,000	2.1
2021년 7월	9,710,000	12.4
2021년 11월	11,240,000	15.8
2022년 11월	11,800,000	5.0

자료: 언론 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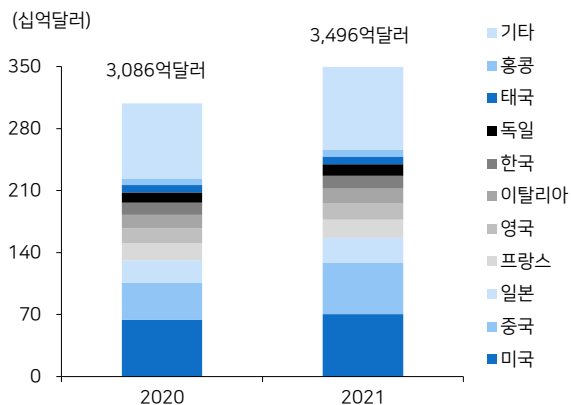
## 2022년에도 명품 고성장 지속?

### 한국, 전세계 7위 규모 명품 시장

계속되는 럭셔리 브랜드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명품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글로벌 럭셔리 시장 규모는 3,495억 달러로, 2020년 3,086억 달러 대비 +13.3% 가량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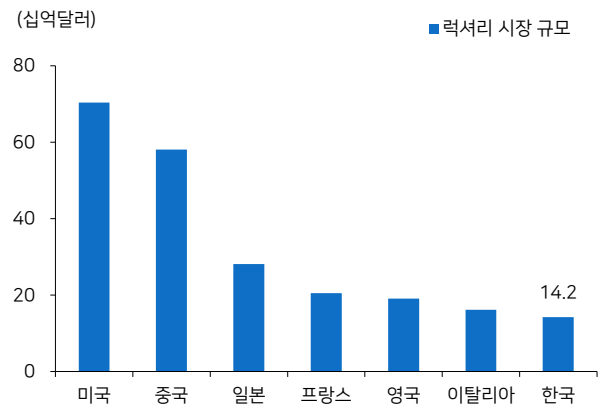
한국의 럭셔리 시장 규모는 141억 6,500만 달러로, 704달러의 미국, 580억 달러의 중국, 281억 달러의 일본, 204억 달러의 프랑스, 191억 달러의 영국, 162억 달러의 이탈리아에 이어 전세계 7위 규모이다. 품목별로는 의류, 시계, 보석, 신발 등 거의 전 품목 매출이 증가했다.

그림3 글로벌 럭셔리 시장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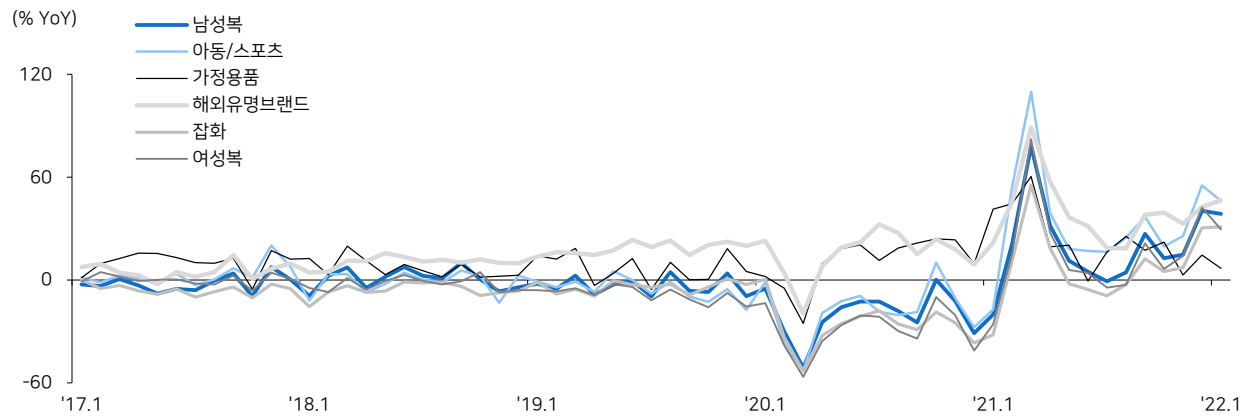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2021년 글로벌 럭셔리 시장 규모: 한국 7위



Euromonito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백화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Chanel lifts prices in Europe and Asia to match levels across the world- Financial Times